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출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아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양출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327호
서기 2001년 7월 18일 수요일 19

법공양 페이지

내면의 보배 찾을 때 마음 평화로워

불보살 가피도 타력인지요

문 진정한 보살정신은 모름지기 모든 중생이 성불한 다음에야 마지막으로 자신도 성불하겠다는 발원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성불을 기약하시며 몸을 나누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수억 겁의 삶에 찌들어 평소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성불하기란 요원하고 자신의 성품을 보는 일조차도 기대하기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까닭에 중생들은 자연히 제불보살의 가피를 빌게 되는데, 이와 같이 견성 성불을 바라면서 불보살의 가피를 빌는 것도 타력신앙이라 하여 배척할 일인지요? 가르침 주시게 바랍니다.

답 밖으로 빌다면 그것은 타력이요, 유마힐거사가 아파서 문수가 병문안 왔을 때 "중생들의 병이 다 나아와 내 병이 낫겠노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더라도 모든 것을 착수 해놓고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놔야 다른 사람들을 구제할 수가 있는 거요? 한번 바뀌어 생각해 보세요. 내 몸뚱이 속에 중생들을 먼저 제도시켜야 법신 보신 화신이 충만하게 화해서 바뀌어 될구실을 통해 들고나면서 승인이 돼 준다든 겁니다. 그렇게 내 몸 속에 있는 중생들이 다 제도가 돼야 마지막 자기가 성불로 완성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완성하려면 내 속에 있는 중생부터 다 제도시켜야 만이 내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둘로 보고 망상이다 뭐다, 또는 어떤 애고 오면 밖으로만 온통 빌고 야단법석을 떠 데다가 하느니 이겁니다. 그게 무슨 격이나 하면 길을 가다가 없드려 놓고는 일어나려고 허공을 허우적거리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땅에서 일어났으면 땅을 짚고 일어나야지 어떻게 허공을 허우적거리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보살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 아무리 불보살님께 빌어 본들, 과거에 아무런 힘이 이 자리에 계신다 할지라도 그런 안 됩니다. 나를 깨닫는 것은 절대적으로 자기가 먹을 건 자기가 먹어야 되는 법입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만이 통할 수 있고, 잘 참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죽는 것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고요. 이 다섯 가지만은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허물며 내 마음 찾는 건데, 찾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건데 대신 누가 밥을 먹여줄까? 타력이나 아니니 하고 분별하지 말고 진정한 나를 발견해서 자유인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세상 너무 불공평해 보여요

문 세상은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나쁘게 사는 사람이 더 잘 살아요. 착하게 사는 건 바보 같고 당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태어나 나쁜 짓 안하고 착하게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 상처받는 게 업 때문이라니 너무 불공평해요. 평생 자신이 의식하는 시간을 착하게 산 것으로 보답 받으실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요. 부조리로 가득 찬 것 같아요.

답 악과 선이 어찌 없겠소? 그렇지만 고정되게 선이다 악이다 할 것이 없

어요. 왜냐하면 동시에 모두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마음이란 그 높고 도둑질도 시키고 선한 일도 시키고 좋은 일도 시키지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늘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악한 짓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늘 악한 짓만 하는 게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타나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모두가 잘나잘나 화하기 때문에 평소 애 착하던 사람도 앞에 일이 닥치면 어쩔 수 없이 나쁜 짓을 하게 되고, 또 나쁜 짓을 하면 사람도 어느 순간 일이 눈앞에 닥치면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좋은 일 하는 사람, 나쁜 일 하는 사람을 굳이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잘나잘나 바뀌니까 말입니다. 어떤 것을 나쁘다고 하고 어떤 것을 좋다고 할 수 있겠느냐. 마음을 바로 쓸 때는 착하게 되고, 또 한 생각을 잘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한 강도가 어느 수물 속을 지나

불구하고 물건을 꺾어서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 얼마나 천차만별입니까? 그 마음들이. 그런 거를 생각할 때, 나무라는데 아닙니다. 사람이 모르니까 도둑질도 하고, 모르니까 어리석은 짓도 하고, 모르니까 나쁜 짓도 하는 거지 마음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모두가 몰라서 그러죠. 알게 될 때까지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죄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죄가 없는 겁니다. 죄가 불을 자리가 없죠. 왜냐? 열 사이 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는 반면에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대로, 만약에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거기가 되 입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게 그거죠. 주인공에서 나오는 모든 거, 일거수 일투족 나오는 거, 속에서 들끓어서 나오는 거, 바깥에서 치고 들어오는 액은, 모든 것을 주인공에다가 맡겨라. 그러면 앞서 입력이 없어도 새 입력으로 들어가면서 새로 입력된 것이 현실로 나온다. 즉 말하자

대천세계 모든 생명
모두 내가 될 수 있고
내가 행할 수 있고
이끌 수 있어야 부처

가다가 보니까 한 여인이 어린애를 등에 업고 안고 걸리면서 영영 울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밥도 못 먹어서 애들이 "엄마, 밥줘! 밥줘!" 하고 울고 가는데 참혹해서 그 강도가 볼 수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강도가 아닌 척 하고서는 다가가서 "어린애가 배고프다. 그러는데 먹을 게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먹을 것도 없거나와 남편도 불쌍하게 가서 영 오지 않고 집도 오막살이 하나 있던 것을 찢고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도질하면서 뱃에서 넣어뒀던 돈을 그 아이들 어머니에게 주면서 오 두마리라도 하나 장만하고 먹고살라고 하면서 먹을 거 조금 집어 온 거는 그 애들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둑질을 하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구나." 하더라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길에 가다가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발길로 차면서 말하는 척해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요. 말하는 척 하면서 돈을 얻어요.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죠. 여러 가지 가지요. 돈을 좀 달라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구가 돼서 휠체어를 타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냥 버젓이 좋은 일 하는 것처럼 하면서 남 보는데 이렇게, 그 마음이 말입니다. 그렇게 내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스러워 할까봐 몰래 그냥 던지시 얼른 넣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건을 아주 비싼 값에 다 팔아주고 가기도 하구요. 또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욕심이 불구인데도

면 과거하고 현재하고 미래하고 통하는 통로는 그 자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주하고도 통하는 길은 그 자리밖에 없고, 모든 일체만물하고도 통하는 길은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니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나쁜 줄로 알지만 가만히 지켜보면 매양 나쁜 것만은 아니죠. 자꾸 자꾸 마음을 내 준다면 선한 길도 접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끌어서 건져라' 하는 거예요.

자식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문 가슴 답답할 때마다 삼베 올리는 신도입니다. 그토록 속을 썩이고 애를 먹이던 남편을 안보면 끝일 거라 등을 돌렸더니 남편보다 더한 스승이 있는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13세 된 제 아들 녀석은 책만 펴면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싶을 정도로 제 마음을 그렇게도 아프게 만들어 놓고서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야만 공부할 제대로 한답니다. 모습만 다를 뿐이지 하는 행동 하나 하나가 그렇게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어떤 식으로 키워야 좋은 자식 인연되게 키울 수 있는지 스님의 크나큰 가르침 간곡히 바랍니다.

답 부인이라는 인연이고, 어머니라는 인연이니까요! 위에서든 회사 얘기를 했습니까만 어느 회사의 중역으로 있는 사람은 그런 소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직원을 다스려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또 보살님도 자식의 어머니요, 남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 나름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되기 전하고 어머니가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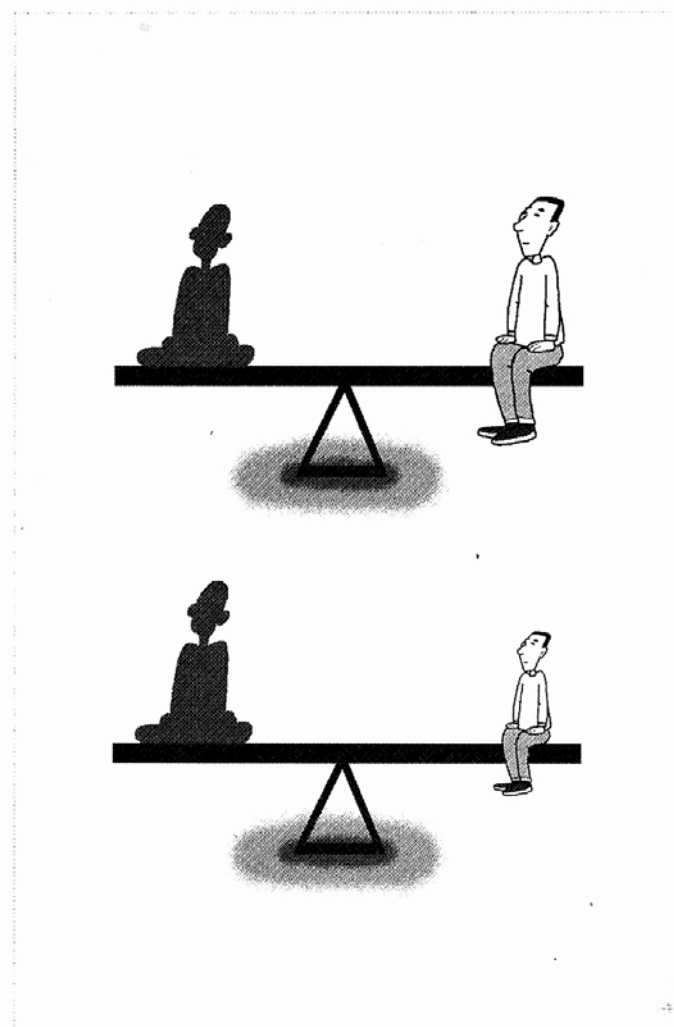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고 나서는 다릅니다. 어머니가 됐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사랑을 베풀고 더러운 것도 볼 수 있고 망انی 짓 하는 것도 볼 수 있는 거고 너그러움이 있는 거지, 만약에 어머니가 되기 전에 다른 집 자식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버지가 되어서 자식들을 내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니라! 곤충에 이르기까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부처의 마음이 모두 갖춰져 있으니라! 그러나 부처님의 마음은 잘나잘나 나 나투면서 아니 되시는 게 없기 때문에 맑은 물에다가 비유를 하고 바다에다가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식, 내 재산, 내 것만 아는 것은 개별적인 그릇의 얘기고, 부처님께서는 대천세계의 모든 생명들을 다 내가 될 수가 있고 내가 행할 수가 있고 나로 다룰 뿐이지 하는 행동 하나 하나가 그렇게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어떤 식으로 키워야 좋은 자식 인연되게 키울 수 있는지 스님의 크나큰 가르침 간곡히 바랍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의 책임을 다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로 했어요, 또는 무엇을 살 돈을 잘 주거나 옷을 잘 입히거나 잘 먹인다고 해서 부모가 제대로 사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사랑을 하는 것은 정신력을 길러주는 것이 진짜 사랑을 하는 거고, 자기 진짜 보배를 찾게 하는 것이 전 세계, 전 우주를

맡겨 주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물질적인 재산을 아무리 많이 물려준다 해도 자기 진짜 보배를 알게 해주는 것보다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렇게 말을 하죠. 가정에서 부부기간에 사랑이 없고 어떠한 문제가 있거든 그대로 사랑하면서, 그대로 부드럽게 행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하면서 다 맡기면 서로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남편이다 부인이다 하는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까지 불이 들어오게 돼 있다. 그래서 망하게 하는 나쁜 습성을 고칠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또 자식도 육신을 잡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말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잘해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단 하나 그 임식을 녹여주면 스스로 밝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기게, 나와 내가 아니니 거기서 만이 부드럽게 행하고, 아주 정말 보배스런 인간으로서 자유인이 되게끔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풍족한 사람이 되고, 모가 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고, 자비롭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도 바로 그 자리에서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를 심심하게 키워주고 보배를 찾게 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그렇게 해 보세요. 나가서 뭐 어떻게 하더라도 절대로 욕하거나 때리지 말고, 또 부부기간도 그렇고 다 그래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속에서 들은 업보가 그러는 거니까, 의식들이 그러는 거니까 주인공! 뿌리는 나하고 돌이 아니니까 주인공만이 해결 할 수 있다고 믿고 맡기세요. 즉 말하자면 뿌리만이 싹을 푸르르게 살게 할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러니 그렇게 하면서 곁으로는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진실로서 그렇게 해준다면 정말 고(高)의 테두리에서 물러 벗어날 겁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모두 착한 자식이 되고 화목을 가져오니 부부기간에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가정의 질서를 문란치 않게 할 수 있고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것을 믿고 열심히 해보세요.

'이뭇고' 의심 꼭 내야 합니다

문 스님의 무애설법에 감사 드리며 가르침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대, 참선을 할 때 큰 의심, 큰 의정, 큰 본심이 있어야 하며 특히 이뭇고하고 의심을 하라고 하는데 꼭 의심을 해야 하는지요. 저는 그냥 지극히 내 마음을 관하기만 합니다.

답 공부를 처음 시작했다면 그렇게 의정을 내는 거는 좀 힘들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내가 '이뭇고' 하고 의정을 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뭇고'를 했을 때는 벌써 그걸 알고 있었던 말입니다. '이뭇고' 하고 했으면 이뭇고에다 또 조조리 다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과정입니다. 그런데 놓치지 못하고 전부 '이뭇고' 하고 그냥 거죽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되죠.

'이뭇고'를 준 자체가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이뭇고'도 놔버려야 돼요. 물론, 의정을 따로 가질 게 뭐 있겠습니까. 이뭇고를 했으면 의심받고 믿어야 이겁니다. '이뭇고'에다 그냥 내 몸이 되고 뒤고 전체를 다 놔 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냥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그게 '하, 이렇게 회한 하구나.' 하게 되죠. 그렇지 않고는 안돼요. 이뭇고도 이뭇일 뿐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스님이 주셨다는 것에 매달려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된다면 그것이 방향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릇되게끔 착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는 생각들에 젖어 가지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아이고, 그렇게 다 놓으라니 다 놓고 어떻게 살아가' 이러죠?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 이 걸어올 때 한 발 놓고 한 발 놓고, 한 발 들고 한 발 놓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걸 짚어주고 다니는 거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그렇게 놓고 가는 겁니다. 그대로, 불놓고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지어 가지고 온통 불 들고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그것대로 그냥 순순히 못하고 매일 걸리는 거죠. 마음으로 지어서 창살 없는 감옥을 자기 만들어 나오지 못하고 자유스럽지 못한 것뿐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세월을 다 보내지 말고 그냥 바로 들어가세요. 너가 너를 풀고 다니니까, 너가 끌고 다니니 그대로 맡기고 그대로 지켜봐라. 못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잘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안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잘 걸림도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는가. 잘했으면 감사하게 놓고 거기에서 맡겨라. 주인의 구멍은 그 한 구멍밖에 없다. 그러니까 거기다 놓고 들고나면서 당신 끌고 다니는 것을 주인을 삼아서 꼭 그렇게 해서 나중에 스스로 깨우치면 자기 고백도 없애지고 소도 없애지고 하듯이, 자기 주인이라는 이름조차 없애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이 육신을 가

20면으로 계속

가빠른 안목을 닦고 고를은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형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양출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45신 288쪽
값 6,000원

어서이온

